

도피 문흥식 검거... ‘학동 붕괴’ 수사 본격화

수억원 금품받고 ‘업체선정 개입’ 여부 등 조사
신병처리 시작으로 ‘재개발 비위 복마전’ 규명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직후 해외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61)이 체포되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미뤄진 문씨의 신병 처리 등 업체선정·재개발 비위 분야 수사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12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문씨는 약 3개월간의 미국 도피 행각을 마치고 지난 11일 자진 귀국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11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씨를 검거했다. 곧바로 문씨를 압송,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에 따라 경찰은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 등에 개입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문씨가 이미 입건에 앞서 도주한 경력이 있어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처리를 해야 한다.

경찰은 조사에 속도를 내 이날 중이나 13일 새벽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이미 구속된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행위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죄’에 적용된다.

민간분야이지만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을 공직 성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어, 조합 측에 청탁·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문씨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문씨가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 구체적인 증거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문씨가 참사 현장 업체 선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공범이 이미 구속됐고, 문씨가 이미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고 도주한 전례까지 있어 문씨의 신병 처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수사는 문씨가 구속된 이후 본격화된다.

업체 선정·재개발 비위 분야에서 18명을 입건(1명 구속)한 경찰은 ▲브로커 공사 수주 과정 금품 수수 행위 ▲수주업체 간 입찰 담합과 불법 재하도급 ▲재개발 조합 자체의 이권 개입 ▲재개발 사업 자체 비리 등 여러 수사 대상을 짚아 놓고 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해외로 도피했던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 광주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김생훈 기자

문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전 사업인 3구역 사업 추진 시절부터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문씨가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재개발 사업 비위 전반을 밝힐 유의미한 추가 진술을 할지가 관심이다.

특히 문씨가 청탁·알선한 업체가 조합·원청에 의해 실제 사업 시행 업체로 선정돼, 불법 업체선정 과정의 추가 연

루자들을 밝히는 데 문씨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업체 간 공사 나눠 먹기’, ‘공사 단가 후려치기’, ‘공사비 부풀리기’, ‘재개발 사업 추가 비위’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문씨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우선 집중적으로 조사해 신병 처리할 계획이다”며 “다른 수사 사항은 구속된 이후

에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 최대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며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이 죽거나 다쳤다.

문씨는 사고 현장의 재개발 사업과 업체선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발생 나흘 만에 해외로 도주했다가 전날 체포됐다.

/최환준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20~27	순천	21~28	광양	21~26
나주	20~27	목포	22~27	여수	22~25

일출 06:14 일몰 18:43
월출 12:52 월몰 22:52

장성	19~28	흑산도	23~26
담양	19~28	구례	19~29
화순	20~27	곡성	18~28
영광	19~28	완도	23~26
함평	20~28	강진	21~26
무안	20~27	장흥	21~25
영암	21~27	해남	21~26
진도	22~27	고흥	21~26
신안	20~28	보성	20~26

목포	만조 06:20 19:09 간조 11:26 --:--	여수	만조 00:42 13:31 간조 06:43 19:39
----	----------------------------------	----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태풍 ‘찬투’ 15~16일 한반도 영향

제14호 태풍 ‘찬투’가 오는 15~16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13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낮최고 기온은 25~29도를 웃돌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는 15~16일 제주 서쪽 해상으로 이동해 17일 오전 9시에 제주 서쪽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에는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오는 15일까지 많은 곳은 500mm의 폭우가 예상된다.

/김민빈 기자

‘횡령수사 무마’ 사기 40대 실형

유력인사를 통해 횡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친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을 속여 8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3)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6월 아버지 등 4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유력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들에게 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환준 기자

HDC 관계자들, 공소사실 모두 부인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 아냐”

광주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HDC 현장소장 서모씨(57)와 안전부장 김모씨(57), 공무부장 노모씨(53)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사상자 17명을 낸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중 석면과 지장물 철거는 재개발 조합이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고, 일반건축물 철거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다.

검찰은 서씨 등이 한솔기업 현장소장

등과 함께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면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매일 현장을 점검했으므로 부실 해체 진행 상황을 몰랐을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살수차 2대가 배치돼 있었음에도 HDC 측이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됐다고 살수차 2대를 더 투입해 살수량을 늘리도록 한솔기업에 지시한 점도 지적됐다.

HDC 직원들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붕괴 원인은 해체 작업과

관련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자를 적용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애초 HDC 직원 3명과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28), 불법 재하도급 업체인 백술건설 대표(골작기 기사) 조모씨(47), 이들 회사 3곳 등 총 8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와 조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2단독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다. 동일 피고인이므로 HDC 직원 3명을 제외한

이들의 재판은 형사2단독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당 재판장과도 협의했다”며 검찰에 변론을 분리하고 재배당을 요구하도록 했다.

학동 붕괴 참사 부실 철거 관련자들의 재판은 현재 광주지법 합의부 1곳(형사11부)과 단독 재판부 3곳(형사2단독·형사8단독·형사10단독) 등 4개 재판부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일 합의부 재판에서 재판 절차 중복 방지, 양형 형평성 등을 감안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HDC 직원들의 다음 재판은 10월 13일로 예고됐으나 그 전에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최환준 기자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3중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한층 한층 탄탄하게

자음생에센스는 인삼의 생명력을 6,000배* 이상 농축한 진세노믹스™로 피부 한 층 한 층 탄력을 채우고-세우고-당겨 탄탄한 피부를 완성합니다.

* 진귀한 인삼 사포닌 CK 함량 비교

Sulwhasoo

www.sulwhasoo.com • Customer Care Center 080-023-5454